

2015.1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0.2%) 시장 예상치 큰 폭 하회

- 금일 발표된 2015.1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전기비 연율, 속보치)은 전분기(2.2%) 및 시장예상치(1.0%) 보다 큰 폭 하락한 0.2%를 기록
 - 이는 달러강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며(4.5% → -7.2%) 순수출(GDP성장에 대한 기여도 -1.0%p → -1.3%p) 감소폭이 확대되고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채굴 장비 등의 구조물 투자가 큰 폭 감소(5.9% → -23.1%)하며 비주택 부문의 기업투자 또한 축소(4.7% → -3.4%)된데 주로 기인
 - 한편 개인소비(4.4% → 1.9%)는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재고증감(GDP성장에 대한 기여도: -0.1%p → 0.7%p)도 예상보다 확대되며 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
 - 이에 따라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민간 최종수요(개인소비+설비투자+주택투자)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인 1.1%로 하락

	13.1/4	2/4	3/4	4/4	14.1/4	2/4	3/4	4/4	15.1/4
■ 민간 최종수요 증가율(%)	3.4	2.3	2.9	4.2	1.0	3.8	4.1	4.5	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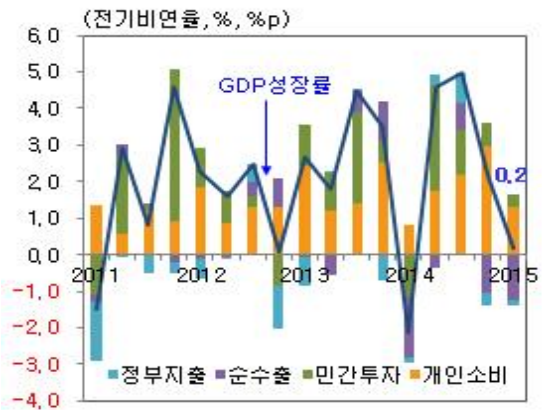
GDP 성장률

(%, 전기비 연율)

	2014		2015	
	2/4	3/4	4/4	1/4
GDP	4.6	5.0	2.2	0.2
개인소비	2.5	3.2	4.4	1.9
민간투자	19.1	7.2	3.7	2.0
비주택 (구조물)	9.7	8.9	4.7	-3.4
주택	12.6	4.8	5.9	-23.1
재고증감 ¹⁾	8.8	3.2	3.8	1.3
순수출 ²⁾	1.4	-0.0	-0.1	0.7
수출	-0.3	0.8	-1.0	-1.3
수입	11.1	4.5	4.5	-7.2
정부지출	11.3	-0.9	10.4	1.8
국방비	1.7	4.4	-1.9	-0.8
	0.9	16.0	-12.2	-0.7

주 : 1)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(%p)

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



-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**금번 GDP 부진**이 기초적 성장 모멘텀의 약화라기 보다는 날씨효과 등에 따른 소비 및 주택투자 지연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**성장세의 일시적 둔화**(soft patch)로 평가
- 다만 달러화 강세의 장기화에 따른 **순수출 둔화** 및 유가하락 등에 따른 **기업투자활동의 위축** 가능성이 **리스크 요인**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분기중에도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
 - 또한 4월 FOMC 회의 정책결정문 상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평가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**연준**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**'wait and see'**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